

# 지식사회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류발전 모습은 눈이 부실만큼 크게 발전했다. 과연 그 원동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밥(먹을 것)과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밥이 있어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한다. 밥과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이것을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을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해왔고, 때로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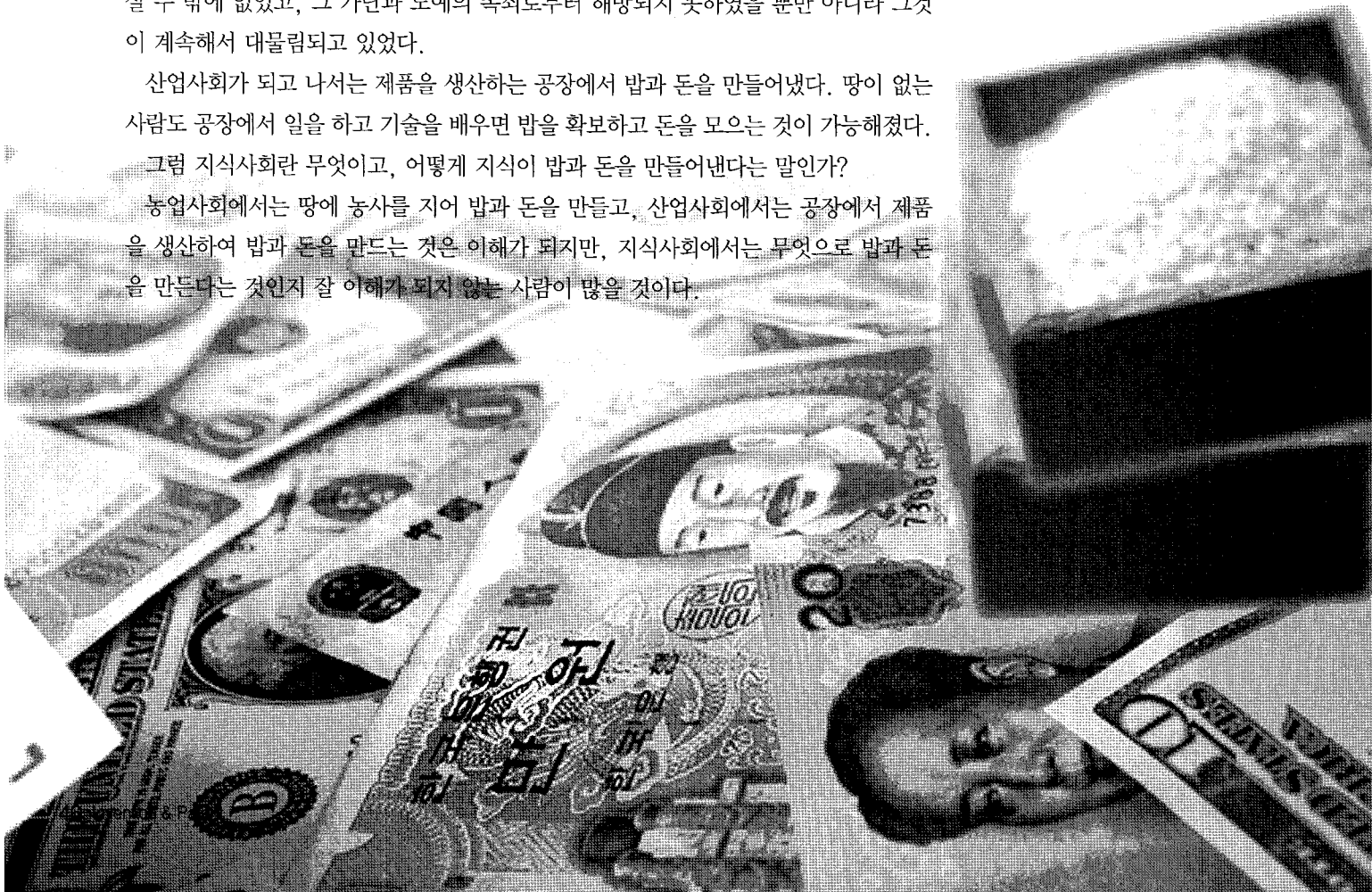
인류발전 역사를 크게 분류해보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지식사회로 분류된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땅을 통해서 밥과 돈을 만들어냈다. 땅이 없는 밥과 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굶주리거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었고, 그 가난과 노예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었다.

산업사회가 되고 나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밥과 돈을 만들어냈다. 땅이 없는 사람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면 밥을 확보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럼 지식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식이 밥과 돈을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농업사회에서는 땅에 농사를 지어 밥과 돈을 만들고,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밥과 돈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식사회에서는 무엇으로 밥과 돈을 만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거에는 자원이나 자본, 인력이나 기술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하나만 우위에 있으면 밥과 돈을 만들 수 있었고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했다.

지식사회에서는 네가지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지식사회란 자원, 자본, 인력, 기술을 융합하는 노하우를 말한다. 서로 상충되는 것을 하나로 융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애플이 이미 있는 기술 즉, 휴대폰이나 컴퓨터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로 융합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를 열광케하는 제품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처럼 이러한 유형을 지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많은 밥과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한다.

###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없다!”

동서고금(東西古今),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바라고 있다. 성공과 행복은 바라고 구한다고 해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삶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자본이나 학벌, 정부나 정책, 가족관계 등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기 일쑤다.

필자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 학습 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없다”는 것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두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성공자는 성공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이 아니다. 한국의 지도가 바뀌는 새만금 공사에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할 때 물살이 너무 세고 빨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전문 박사들은 모두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고(故) 정주영 회장은 생각을 달리했다. 막지 못하고 있는 물막이 공사 거리만큼의 “길고 큰 막대기가 갖다 댈다면 막

을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만한 크기의 막대기를 찾아나섰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큰 막대기는 큰 배밖에 없었다. 큰 배는 배 값이 너무 많아서 경제성 관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또 길이 막혔으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만한 크기의 폐선을 사면될 것 아닌가?”하고 또 한 번의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에서 폐선을 고철값으로 사다가 물막이 공사를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가 새만금의 드넓은 땅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또 비행기의 예를 보자면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미국의 우주공학의 권위자인 뉴컴 교수가 선언했다. 이때가 바로 1900년의 일이다. 당시에 우주공학의 권위 있는 전문교수가 선언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3년뒤 1903년에 한 지방의 자전거 점포의 무명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최고의 수리학이나 우주 물리학으로도 해내지 못한 것을 무명의 시골 자전거 점포의 라이트형제가 자전거 바퀴의 균형원리에 따라 발명해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이란, 이론이나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로 말하고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거나, 성역으로 여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요 정답이다.

### 지식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흔히들 ‘선택과 집중’에 대해 말한다. 선택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집중만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다. 집중을 잘하려면 첫째,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야 한다. 잡념이 없으려면 불평, 불만, 불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온통 불평, 불만, 불안투성이다.

이런상태에서는 머릿속에 잡념이 떠날 수 없고 머리가 맑아지기 어렵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하고 이리저리 규제나 장애도

많고 갖춰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필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평생동안 쌓아온 많은 고난과 경험, 많은 노력과 학습 등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내 자식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볍게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쉽게 흘러 버릴 수도 있고, 반복해서 말하다보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마디로 말해 “감사하라!”는 것이다. 뒤에 대해 감사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거나 이 말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 사람은 근거없이 감사하기 어렵다. 그럼 무엇에 대해 감사하란 말인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유와 현실과 삶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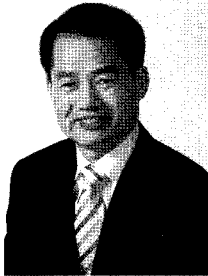
인간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 또 누구때문이라고 불만이나 원망 등에 대해서 있었던 불평, 불만, 불안이 사그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일 한 없이 감사하면 진정으로 불평, 불만, 불안이 사라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긍정적인 마음이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집중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다.

필자도 한때는 많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 남과 세상을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해봤지만 이러한 원리를 통해 나름대로 지금의 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갖추고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강렬하게 원하고 필요를 느끼면 반드시 방법이 나오는 법이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유와 현실과 삶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진하라!

그리하면 성공이 눈앞에 가까이 보일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여 인생을 바꾸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김 영 귀**  
 KYK(주)김영귀환원수 대표이사 및 KYK과학  
 기술연구소 소장  
 중국청도이공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  
 동북아포럼 이사  
 건강문화교육센터 원장  
 사단법인 장영실기념사업회 이사  
 (사)선행청천운동본부 이사